

기도폐쇄 처치 흐름도



1. 환자가 목을 손으로 감싸고 숨을 못 쉬고 힘들어 할 때

- 목에 이물질이 걸렸는지를 물어본다.
- 말을 할 수 없는지를 물어본다.(기도가 이물질로 완전하게 막힌 경우 말을 할 수 가 없음.)
- 말을 할 수 있다면, 기침을 유도하여 환자 스스로 이물질을 뱉어내도록 한다.
- 말을 할 수 없는 경우 복부 밀침 (하임리히법)시행

! 1세 이상에서 시행 가능(영아는 소아 심폐소생술 편 참고)

2. 하임리히법 시행

- 시술자가 환자의 뒤에 서서 주먹을 쥐고 주먹의 엄지 쪽을 배꼽과 갈비뼈 사이의 중앙에 놓는다.
- 다른 손으로 주먹 된 손을 감싼 후 빠르게 후 상방으로 환자의 배를 밀어 올린다.
(이때 순간적으로 흉부에 압력이 증가, 이물질을 기도 바깥으로 뱉어낼 수 있다)
- 환자가 이물질을 뱉어내거나 의식을 잃고 쓰러질 때까지 반복한다.
- ! 의식을 잃고 쓰러지면 바로 119에 신고 후 심폐소생술을 시행한다.